

ACC...아시아문화박물관 중앙아시아실 상설전

실크로드. 고대부터 중세까지 동아시아와 서아시아, 유럽을 연결한 거대한 무역길 네트워크를 의미하는 단어다. 흔히 하나의 길로 여겨지지만, 실제로는 수많은 발길을 그리고 떠남과 머무름의 흔적이 모여 풍경 속 살아 있는 결을 이루게 됐다. 길 위에 새겨진 시간의 흔적, 도시를 오가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전시로 펼쳐진다.

▶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개관 10주년 기념 특별 상설전 '길 위의 노마드'를 아시아문화박물관 중앙아시아실에서 선보이고 있다.



길 위에 새겨진 흔적...중앙아시아실 실크로드를 거닐다

카라반·바자르·유목문화 등 교류 유산 소개

공연·공예품 등 현지 영상 아카이브 선봬

아시아문화박물관 조사·수집 성과 한자리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이 개관 10주년을 기념한 특별 상설전 '길 위의 노마드'를 아시아문화박물관 중앙아시아실에서 선보인다.

지난해 '본순으로 열린 세계'에 이은 두 번째 상설전으로, 해상 실크로드에 이어 올해는 육로

실크로드의 문명을 다룬다.

특히 전시는 몽골국 문화부와 국립문화유산센터·국립예술대학교, 우즈베키스탄 문화부와 사마르칸트시, 주한우즈베키스탄대사관, 키르기즈공화국 문화부와 주한기르기즈공화국대사관, 투르크메니스탄 문화부, 주한투르크메니스탄대사관 등과의 협력을 통해 추진됐다. 현지 기관과 개인, 예술가들이 제공한 소장품 기증과 구입, 공연·연주 영상 촬영 지원, 전문가 네트워크가 전시 기획과 콘텐츠 구성 전반에 반영됐다.

중앙아시아의 이동과 교류의 역사를 조망하

는 이번 전시는 카라반과 유목민, 동물의 발걸음과 교역의 경로가 겹겹이 쌓여 만들어낸 '움직이는 선들의 집합'으로 실크로드를 조명한다. 사파과 초원, 오아시스 도시를 오가며 삶을 꾸렸던 중앙아시아 사람들의 이동과 머물, 교류의 흔적을 감각적으로 풀어냈다.

전시는 크게 3개 파트로 구성됐다.

1부 '카라반의 숨결이 쉬어간 자리'에서는 대상숙소(카라반사이)를 중심으로 사막을 건너는 상인들의 이동과 휴식의 공간을 다룬다. 각 교역 거점마다 세워졌던 이곳은 단순한 쉼터가 아니

라, 세상의 이야기가 모여드는 자리이기도 했다.

2부 '교역이 꽂피는 곳, 바자르'에선 도자기·카펫·작물·악기·목공예품 등 땅에서 난 모든 것 이 모여 거래되던 시장의 활기를 소개한다. 낯선 언어들이 뒤섞이고 향신료와 직물의 냄새가 느껴지는 듯하다. 비단, 도자기, 악기, 과일이 수레마다 쏟아져 들어오고, 사람과 사람, 생각과 생각이 이곳에서 만났다.

3부 '초원, 자연과 조율하는 삶'은 이동식 천막집인 유르트와 마구·말갓집, 유목민의 생활용품을 통해 노마디즘의 지혜와 현대적 의미를 풀어낸다.

또 이번 전시에서는 아시아문화박물관이 그간 축적해 온 조사·수집 성과도 한데 모아 선보인다.

김상우 전당장은 "이번 전시는 중앙아시아 초원과 오아시스 도시의 예술과 생활문화를 입체적으로 보여주는 동시에 이동과 교류가 만들어낸 실크로드의 유산을 오늘의 시각에서 재해석한 자리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아시아문화박물관 상설전시를 통해 아시아 각 지역의 문화 다양성과 공존의 자혜를 지속적으로 소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명진 기자

한국학호남진흥원, '열린 수장고'로 공적 가치 확산

기록유산 보존·관리·연구 성과 공유

한국학호남진흥원은 시·도민과 함께하는 '열린 수장고'를 올해에도 성황리에 운영하며 지역 기록유산을 활용한 개방·공유 성과를 가시화하고 있다.

'열린 수장고'는 2023년부터 추진해온 한국학호남진흥원의 대표적인 대중 개방 프로그램이다. 그동안 일반에 공개되지 않았던 수장고 일부를 개방하고 호남 지역의 기록유산을 소개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단순 관람을 넘어 자료의 가치와 보존 과정을 이해하도록 설계된 점이 특징이며, 올해로 3년 차를 맞아 안정적인 운영 체계를 갖추게 됐다.

특히 올해에는 지역학 연구의 미래 인력 양성을 목표로 대학생·대학원생 중심의 참여형 프로그램으로 고도화했다. (사진)

전북권에서는 전주대 한국고전학연구소, 전남권에서는 목포대 사학과, 광주권에서는 전남대 사학과 등 호남권 주요 대학 소속 학생들이 참여해 실제 연구 현장에서 활용되는 1차 자료를 확인, 체험하는 기회를 가졌다. 참가자들은



자료의 실물 가치와 연구 활용 가능성을 체감하며 높은 관심을 보였다.

프로그램은 한국학호남진흥원의 설립 취지와 기능, 웨순·멸실 위기에 놓인 지역 기록유산을 체계적으로 수집·보존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시청각 자료 소개로 시작됐다.

이어 진흥원이 그간 추진해온 자료 수집·정리·보존·관리 전 과정을 공개하고, 정리실과 수장고를 개방해 자료 분류 방식, 보존 환경 관리, 기록물 관리 절차 등을 현장에서 설명하는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를 통해 기록유산 보존이 전문성과 지속성이 요구되는 공공적 책무임을 이해하도록 했다. /최명진 기자

현재 한국학호남진흥원은 자정문화유산 2천 여점과 함께 총 10만점이 넘는 호남 지역의 기록유산을 체계적으로 수집·보존·관리하고 있다. 이러한 성과는 지역 내 산재한 기록유산을 공공 영역으로 편입하고, 향후 연구·교육·콘텐츠 활용으로 확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홍영기 한국학호남진흥원장은 "열린 수장고는 자료를 단순히 보관하는 공간을 넘어 시민과 연구자, 미래세대가 함께 배우고 소통하는 열린 플랫폼으로 기능하고 있다"며 "수장고 개방을 지속 확대해 지역의 기록유산을 널리 알리고 사회적 가치로 확산시키겠다"고 밝혔다. /최명진 기자

2026 신년 여는 동·서양 음악적 '만남'

내년 1월16일 광주시향 신년음악회



소프라노 문현주



사물광대

이 연주되며 전통 사물놀이와 서양 오케스트라의 강렬한 만남을 선보인다.

2부에서는 경쾌하고 우아한 분위기의 요한 슈트라우스 2세 오페레타 '박쥐' 서곡이 무대를 채운다. 이어 빈 오페레타와 폴카, 월츠의 정수를 담은 신년음악회의 정통 레퍼토리가 펼쳐진다.

매혹적인 목소리의 소프라노 문현주가 프란츠 레하르의 오페레타 '쥬디타' 중 '내 입술, 그 입맞춤은 뜨겁고', 임금수의 '강 건너 봄이 오듯' 곡을 통해 새해의 희망을 전한다. 이후 요한 슈트라우스 2세의 '천둥과 번개 폴카', '사냥풀카', '봄의 소리 월츠' 등이 연이어 연주되며 축제의 분위기를 고조시킨다.

/최명진 기자

광주매일신문을 펼치면 광주·전남의 미래가 보입니다

지역의 품에서, 독자의 곁에서 늘 사랑받는 신문이 되겠습니다!!



시내
지국

지방
지사

- 중앙지국 222-8171
- 산수지국 224-4188
- 학운지국 673-6836
- 화정지국 372-9140
- 금호지국 376-7153
- 풍암지국 603-0311
- 노대지국 674-3581
- 상무지국 453-2554
- 광천지국 374-2120
- 진월지국 676-2726
- 불선지국 673-6836
- 백운지국 673-0123
- 두암지국 266-1920
- 농성지국 362-4102
- 유동지국 222-8171
- 운암지국 529-3548
- 용봉지국 261-1503
- 신가지국 954-1420
- 양산지국 574-3745
- 하남지국 951-9954
- 운남지국 952-1687
- 오치지국 261-9461
- 문흥지국 261-9462
- 일곡지국 573-3200
- 철단지국 971-7374
- 치평지국 371-9584
- 수원지국 955-0451
- 광산지사 944-0993

- 목포지사 061)270-8689
- 동목포지사 061)278-0740
- 남목포지사 061)245-3797
- 신안지사 061)980-8300
- 순천지사 061)746-1600
- 여수지사 061)651-6433
- 나주지사 061)335-0005
- 광양지사 061)793-6800
- 구례지사 061)782-4696
- 담양지사 061)383-5566
- 곡성지사 061)362-5746
- 고흥지사 061)832-6290
- 보성지사 061)852-6644
- 화순지사 061)373-7795
- 강릉지사 061)863-6800
- 강진지사 061)432-8899
- 해남지사 061)535-5849
- 영암지사 061)473-7151
- 무안지사 061)453-3645
- 함평지사 061)322-0882
- 영광지사 061)353-5133
- 장성지사 061)394-3636
- 완도지사 061)555-0134
- 진도지사 061)542-4330

www.kjdaily.com



광주매일신문 구독QR